

‘100세 시대’ 어르신 위한 108배 앱 보급한다

포교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어린이·청소년 범죄 사례집 학부모 마음공부 책자도 나와

조계종 포교원은 맞춤형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어르신 마음거울 108’과 책자 ‘어린이·청소년범죄 매뉴얼 및 사례집’, ‘〈2015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 등을 연이어 제작해 보급에 나섰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한 ‘어르신 마음거울 108’ 애플리케이션은 포교원이 지난 2012년 ‘어린이 마음거울 108’과 ‘청소년

년 마음거울 108’을 출시한데 이어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배포됐다. 어르신 마음거울 108은 ‘가정과 사회에서 내 역할이 바뀌는 것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할 때 나이와 권위를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으로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등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을 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절 힌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하기 속도도 조절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앱은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범죄 매뉴얼 및 사례집’은 어린이·청소년범죄 모범 사찰의 특화프로그램

을 담아냄으로써 여느 사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제작됐다. 이 책은 체험활동형 등 5가지 대주제 내에 청량사와 금륜사, 금강선원, 황룡사, 세원사 등 사찰 20곳의 범죄매뉴얼을 소개해 놓고 있다. 각 사찰마다 사찰 기본 현황, 목표 및 현황, 시설 및 준비물, 인력 및 예산 운영, 범죄 및 프로그램 진행방법, 범죄 및 프로그램 연간 일정, 진행 점검 회의, 기대효과 및 포교효과 등의 내용을 구성돼 있으며 범죄 및 프로그램 진행방법 코너는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2015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은 포교원의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백담사의 ‘꿈

사리 프로그램’과 올리브명상상담센터의 ‘청소년 활동명상’을 상세히 소개해 놓았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 의뢰를 받아 한마음과학원이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발간했다.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는 청소년의 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용’과 ‘교육생용’으로 각각 발간됐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스님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 속에서도 시대상황에 맞게끔 끊임없이 포교교구재를 개발해 보급하려고 노력중”이라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익 기자 parkintak@ibulgyo.com

가족과 함께 하는 세월호 인양 콘서트

사회노동위, 참사2주기 맞아

17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스님)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바라는 세월호 인양 콘서트’를 개최한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9명의 수습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콘서트는 사회노동위원회 노동위원 동환스님의 ‘회심곡’ 공연, 종교인 인사말, 희생자 가족 인사, 세월호 가족합창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2주기에 맞춰 콘서트를 비롯해 팽목항 기도회, 추모제 등을 통해 참사를 되새기고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호법부 상임감찰 제한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에 제한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제한스님은 설현스님을 은사로 1996년에 사미계를, 2005년에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3년에 동국대를 졸업했다.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지원하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지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청담장학문화재단이 지난 10일 불교신문 발전 기금 20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이경민 기자의
현장에서
kylee@ibulgyo.com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들 두고 어이갈꼬”

박복한 삶이었다. 24살, 처음 품에 안은 아들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시집살이는 고됐고 진정은 모였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다 방바닥을 벽벽 긁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자독하게 괴롭혔던 다리 통증은 떨어질 줄 몰랐다. 서른을 넘겨서야 원인 모를 통증이 ‘대퇴부무혈성괴사증’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다. 피가 잘 돌지 않아 엉덩이 쪽 뼈 조직이 썩는 희귀 질환, 인공관절 수술을 4번이나 받고 나서야 겨우 걷게 됐지만 태어나 서른이 넘도록 신발 한번 신어 보지 못한 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맨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지난날 합전에서 만난 한정순 전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은 피폭피

해자들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었어요. 2남4녀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났지만 예뻐 보다 미움을 더 많이 받았죠. 첫째 아들은 돌 지나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다른 형제들도 원인 모를 병으로 아픈 데다 시집간 딸마저 장애아들을 낳았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피폭 후유증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합전평화의집’과 피폭의 후유증으로 유전질환을 겪고 있는 2, 3세들을 위한 생활시설 건립비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모금 실적은 저조하다고 했다. 합전평화의집은 한국인 원폭 피해2, 3세를 위한 전국 유일의 쉼터다. 지난 2010년 개원 이래 지적 장애, 다

운증후군 등 피폭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피해2, 3세를 24시간 돌볼 수 있는 생활시설을 짓고자 ‘땅 한 평 사기 운동’ 등을 펼쳐왔지만 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한정순 회장에게 모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한 회장은 합전평화의집 운영위원장 해진스님에게 이미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한 회장은 “스님이 자꾸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각박한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전화 소리 너머로 울음을 삼키던 한 회장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희귀병을 대물림해놓고, 자신이 떠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원폭피해자들의 불안과 시름이 깊어져간다.

본·말사 주지 인사 (3월8일 총무원회)



경전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허운스님
제23교구본사관음사



덕운스님
속초 보령사



지황스님
보령 백운사



해진스님
김해 은하사



대한스님
부산 무궁사



정안스님
가평 아미타보살사



덕일스님
서울 길상사



인범스님
영암 염불암

www.donghwasa.net

바르게 배워 널리 전하자

팔공총림
동화사

동화사승가대학 학인모집

동화사승가대학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학인스님들을 모십니다.

머리 숙여 발을 본다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승가대학에서 불기2560(2016)학년도
신입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신입생 00명 / 편입생 · 재입학생 00명
- 구비서류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 (편입생, 전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특 전 1. 성덕대학교 불·학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과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 지급
2. 해외 성지순례
3. 모든 신입생 최신형 노트북 지급
- 문 의 처 강원 053-980-7923, 입승 010-4945-2644
학감 010-6422-3895(문자 후 전화요망)
또는 동화사 홈페이지(www.donghwasa.net) 참조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승가대학장 우암 양관